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Regional Development in Non-Metropolitan Regions: Focusing on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Foreign Worker Influx

송선영 Song Sunyoung**, 남진 Nam Ji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inflows of foreign workers on the development of non-metropolitan regions. Declining birth rates and an ageing population have led to a fall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esulting in labour shortages in these areas. In such circumstances, reg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are likely to contract, reducing vitality and potentially leading to a regional crisis. In response to this challeng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population framework and is actively promoting foreign labour polic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analys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non-metropolitan characteristic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foreign worker inflow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in non-metropolitan areas depends on the type of stay and is influenced by job opportunities and socio-cultural settlement environments.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non-metropolitan regions directly affect regional development and indirectly affect it through foreign worker inflows. These results suggest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ynamics, industry, settlement environments and policy frameworks, all of which contribute positively to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securing spatial diversity in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 workforce policies; introducing policie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ing ongoing management measures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Keywords: Non-Metropolitan Regions, Foreign Workers, Regional Development, Interaction, Mediating Effects

I. 서론

20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현상을 처음 경험하고 2023년에는 전체 인구

의 고령자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주보혜, 오신휘, 박종서, 류종현 외 2022, 11; 유희연 2023, 5).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 (-7.7%)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0.06명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

* 이 논문은 2023년 10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대한교통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중소도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 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 Doctorate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Seoul of Univ. | Primary Author | sysong22@uos.ac.kr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Seoul of Univ. | Corresponding Author | jnam@uos.ac.kr

1). 또한 인구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 인구가동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이원도, 유수영, 김영룡 2023, 253).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생산 및 소비 등의 활동이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이상림 2020, 5).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는 세수 감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인프라 노후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 자립 역량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의 격차와 양극화를 가져왔다(김동신 2021, 179). 더욱이 지역 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지역쇠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의 인구위기 및 부족한 노동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4만 9,402명(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수(2,808만 9천 명)가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7.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지역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남 영암군 18.6%, 충북 음성군 18.1%, 충북 진천군 13.9% 등으로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거주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b, 3). 국내의 지역상황과 정책 결정 등이 반영되어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특정 장소가 가지는 인프라와 그 장소에

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지역 내 이동과 분포에 영향을 받게 된다(정현주 2020, 577).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적, 계급, 젠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리적 이주(geography of migration)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외국인 근로자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 인구정책 측면에서 지역 거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종관 2020, 7).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유입하여 정착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오설리번 2021, 282). 즉,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생산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고용 상승으로 경제적 기여를 형성한다(차용호 2021, 32).

이미 농어촌 및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고 특히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의 농어업, 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 등에서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대체(Substitution Effect)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오준병 2017, 25).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점점 중요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의 업종별 인력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외국인력은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활동뿐 아니라 정보교류와 사회활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이는 지역 내 생산 및 소비활동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도시의 사회적·공간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이소영 2013, 32-33)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1) 정부는 2022년 지역의 인구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력을 지역의 수요에 맞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지자체는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법무부 2022: 2025).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지역 거주 및 정착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관심이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지역 내 경제·사회·문화 등의 지역발전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의 노동력 대체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발전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지역발전제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적 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수요맞춤형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및 정의

우리나라의 법령에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정의하며 체류기간, 취업활동, 결혼, 유학 등의 목적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²⁾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는데 법무부와 통계청은 200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으로 C-4, E-1~E-7, E-9~E-10, H2를 포함한다.

또한 고용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한다. 외국인 주민은 '90일 이상 초과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3) 개념을 정의하고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는 E-1~E-7, E-9~E-10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동안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90일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E-1~7)과 단순기능인력(E-8~10, H-2)을 말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국제인구 이동은 대부분 생계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등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노동력의 이주로 볼 수 있다(류주현, 2009, 80). 국가 단위의 외국인 유입은 노동이주(labour migration)를 기반한 외국인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이건희, 김규찬 2023, 128). 특히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노동시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외국인력의

2)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분류됨. 단기체류는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음. 장기체류는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의 상한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음. 또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외국인을 업무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함.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E-5), 예술총행(E-6), 활동(E-7)으로 구분되며 단순기능인력은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 밖에도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외국인으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음.

유입이 내국인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대체·보완 관계에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고용이 일부 보완적 관계(김정호 2009, 64)를 보이고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체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이용규, 노용진, 이정민, 이해경 외 2008, 46). 반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가설은 성립되지 않고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립 및 단순노무업종과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한정하여 일자리를 대체한다(이찬영, 조수영 2017, 103).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내국인 근로자에서 고용 대체효과가 나타났다(오준병 2017, 25).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효과와 동시에 기존의 노동력을 보완하여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라 내국인 고용도 함께 증가시킨다(최병두 2009, 385; 이용규, 노용진, 이정민, 이해경 외 2008, 87; 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2007, 22).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증가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므로 지역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된다(유길상, 이규용, 이해춘, 노용진 외 2004, 127).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의 수요나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Greenwood and Hunt 1995; 최병두 2009, 374).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과 소비활동은 경제적 기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은 외국인 근로자의 총생산 유발효과가 29.5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8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보다 비전문직 외

국인 근로자의 생산유발효과가 5배(25.0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배 이상(7.9조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동관 2016, 10). 이는 외국인 유입정책이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많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경제적 기여 비중이 전문인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승훈 2013, 31). 또한 생산가능인구 대비 2~10%의 외국인이 유입되면 총공급은 단기적으로 1.1%(16.2조 원)에서 장기적으로 10.3%(384조 원) 증가하여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조경엽, 강동관 2014, 97).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젊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유광철, 오동훈 2014, 87).

한편 외국인력의 지역 선택은 체류자력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특히 외국인 거주지역의 선택은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인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Faist 2000). 이주민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것은 그 공간에 이주민이 요구하는 상호 호혜성, 연대성, 배려, 정보의 네트워크 등의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됐을 때 특정 지역으로 사람들의 이주가 시작된다(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45). 외국인은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동일 국적 출신자들이 밀집한 곳으로 이동하고 정보교환과 사교활동의 중심지로 집중된다(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윤영 2014, 4). 실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구로구 대림동의 한국계 중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프랑스인, 용산구 이촌동의 일본인 밀집지역 등 동일 국적 출신들의 집중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거, 노동, 교육, 여가, 교통,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성장을 지속하며(이정열, 정수열 2015, 316) 사회, 경제 등 지역발전에 영향을 준다. 외국인 밀집거주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외국인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차용호 2022, 2).

또한 외국인력의 이동은 임의적으로 이주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고용조건이 좋은 지역(Borjas and Hanson 2010)뿐 아니라 문화적 친화성(cultural compatibility)에 대한 고려,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 등에 따라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뉴캐슬사회지리연구회 2023, 299). 따라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역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소비하고 고용 창출 등으로 연계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종관 2020, 4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의 소멸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역쇠퇴와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지역과 쇠퇴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인구도입 및 지역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지역활력은 지역의 재생성 확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역량의 개념(Makkonen and Inkinen 2023, 334-344)으로 정의되고 인구감소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영주, 임은선, 정우성 2022, 9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연구는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함께 정책적 대안과 학술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지역의 경제효과를 다룬 선행연구

(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2007; 김정호 2009; 유광철, 오동훈 2014; 오준병 2017; 이종관 2020)와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및 공간분포에 따른 현황과 효과분석(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운영 2014; 이현옥 2015; 차용호 2025)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내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보완재(complement) 또는 대체재(substitute)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생산 인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쇠퇴 위기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구 유입뿐 아니라 미래 환경변화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민보경 2022, 19).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사회·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의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일차원적인 인과관계이기보다는 다차원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라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지역 내 낮은 임금을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액 증가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이런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이질성이 증가하여 거주지 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지역경제 간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조절 또는 매개적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

표 1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발전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저자 (연도)	대상지	분석방법	지역발전				주요내용
			노동/산업		경제 성장	네트 워크	
			대체	보완			
김홍배, 윤갑식, 오동훈(2007)	국내	가격 다지역 투입산출모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노동자 고용증가→생산액 증가와 국내 노동자 고용 유발 효과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동시에 있음을 주장
이규용, 김유빈, 강동우, 최세림 외 (2008)	국내	다중회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내국인 대체가 나타나지 않음 건설업과 음식서비스업→ 대체효과가 나타남
김정호 (2009)	국내	프로빗모형 (도구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이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최병두 (2009)	국내	문헌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단순노동자 대체효과 및 노동시장 세분화로 기존의 노동력 지위를 보완적 향상→지역 생산성 단계적으로 증대하는 효과 주장
조경엽, 강동관 (2014)	국내	일반균형모형 (C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가능인구 대비 2%~10%의 이민자가 유입된다면 총공급은 단계적으로 1.1%(16.8조 원)에서 장기적으로 10.3%(384조 원)의 증가 기대
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윤영 (2014)	부산·경남 지역	다중회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사글세·월세(+)-> 외국인 밀집지수 증가
유광철, 오동훈 (2015)	전국/농촌	다중회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결혼이주자→지역 내 총생산 긍정적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영향력, 농촌지역은 결혼이주 및 영주가 더 큼
강동관 (2016)	국내	산업연관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연관효과 분석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생산유발효과는 29.5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8억 원으로 추정
오준병 (2017)	인천지역	다중회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중소기업→내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효과가 존재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 불완전 대체관계
이찬영, 조수영 (2017)	광주·전남 지역	이원오차조정 모형(패널모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노무업종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성진, 김희삼 (2020)	국내	그랜저인과성 검정(패널모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 고용 간에 양(+)의 상관성→ 단계적으로는 보완관계가 있음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내 유입→ 저학력·저숙련 근로자 고용하는 대체효과
차용호 (2022)	전국시군구 도시/농촌	공간관계 SUR모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시·군·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높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 증가 비수도권 지역은 외국인 밀집지역→경제활동 외국인→지역 내 총생산 증가

자 유입이 지역특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실증분석한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산업·생활 및 정주환경·정책적 요인의 지역적 특성이 지역발전 전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 전에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파악한다.

III.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공간적 특성

1. 외국인 근로자 지역별 유입 추이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이하 외국인)³⁾은 2023년 기준 250만 7,58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89%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3).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1,46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3) 체류 외국인은 장단기 체류자격별(A~1~T~1) 외국인으로 등록 외국인,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을 말함. 등록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말함(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3).

추세이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0년 45만 2,297명(전년 대비 25.5%↓), 2021년 40만 6,669명(전년 대비 11.2%↓)이었다가 2022년(전년 대비 9.5%↑)부터 다시 증가하였다.⁴⁾

2013~2023년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평균 45.5%를 차지한다. 이 중 전문인력은 평균 9.2%이고 단순기능인력은 90.8%로 대부분 저숙련 근로자의 유입이 많다. 여전히 단순기능인력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2.5% 상승하여 2023년에 1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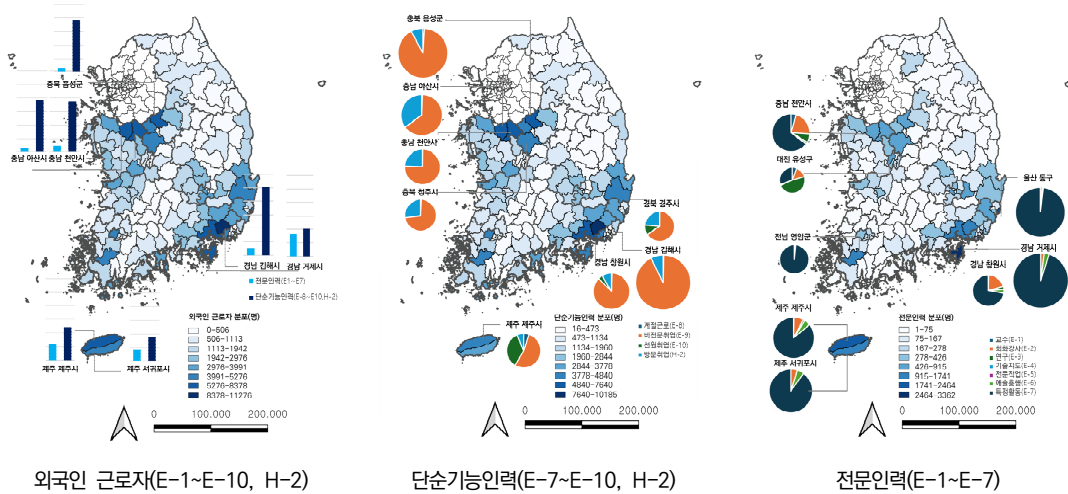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별 평균 전문인력은 경남(3,111명), 제주(2,919명), 부산(2,530명)지역 순으로

높게 분포하고 평균 단순기능인력은 경남(4만 2,280명), 충남(1만 8,908명), 경북(2만 5,239명) 지역에 집중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외국인 증가로 인해 지역 격차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지역별 2022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울산 60%, 경남 36%, 전남 34%, 전북 26%, 충남 2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6% 이상 증가하였다.

2.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공간적 분포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⁵⁾ 단순기능인력의

그림 1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공간적 분포현황



4) 2019~2023년 체류외국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A)	51,849,861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체류 외국인(B)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비율(B)/(A)*100	4.87%	3.93%	3.79%	4.37%	4.89%
등록 외국인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외국인 근로자	555,538	452,297	406,669	424,987	501,467

자료: 통계청,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통계 자료 활용하여 작성.

5)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3년 시군구별 및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체류자격 유형은 비전문취업(E-9)(66.3%)이 가장 많으며 선원취업(E-8)(8.1%), 방문취업(H-2)(7.3%), 계절근로(E-10)(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단순기능인력은 경남 김해시(10,185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음성군(7,640명), 충남 아산시(7,630명), 충남 천안시(7,463명), 경남 창원시(6,001명), 제주 제주시(4,840명) 순으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경남 김해시는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김해 테크노밸리, 나전 농공단지 등 21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충남 아산시·천안시·당진시는 충북 북부권에 굴포, 배방, 산당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경남 창원시는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을 가지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실제 창원시의 외국인력은 대부분 일반산업단지 및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단순 노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구본우, 이자성, 정호진, 윤재봉 외 2024, 39).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목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하고 농번기의 일손 부족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군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며 충북지역 내 16개의 산업단지가 음성읍, 대소면, 맹동면 등에 입지하고 2천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존재한다. 단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파종기와 수확기 등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를 활용하고 라오스, 캄보디아와 MOU 협약을 통해 외국인력 수급하고 있다. 선원취업(E-10)은 선

원업 등에 종사하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어업이 가능한 전남 여수(2,077명), 경남 통영(1,732명), 제주 제주시(1,699명) 등에 높은 지역적 분포로 보인다.

또한 방문취업(H-2)은 충남 아산시·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계 중국인들이 제조업 이외 음식업, 가사·간병,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공간적 분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이현욱 2015, 62-66).

전문인력은 경남 거제시(3,362명)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며 울산 동구(2,464명), 제주 제주시(2,300명)·서귀포시(1,741명), 전남 영암군(1,313명), 경남 김해시(1,091명), 경남 창원시(1,090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 지역의 높은 분포는 조선업 중심도시로 현대 중공업, 현대삼호 중공업 등이 위치하여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제주 제주시·서귀포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고용 허가 건수가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1차 산업 분야에서 70%를 차지하고 비전문취업(E-9)과 특정활동(E-7)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 또한 지역 특성상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술홍행(E-6)도 높은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전문인력의 업무유형은 특정활동(E-7)이 가장 많으며(9.7%) 회화강사(E-2)(2.4%), 연구(E-3)(0.8%), 예술홍행(E-6)(0.5%), 교수(E-1)(0.4%) 순이다⁶⁾. 특정활동(E-7)⁷⁾은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

6) 회화강사(E-2)는 대구 수성구(238명)와 대전 서구(220명)가 가장 많음. 그 밖의 연구(E-3)는 대전 유성구(354명), 광주 북구(129명), 경북 포항시(117명)이며 교수(E-1)는 경북 경산시(196명)로 가장 많고 대전 동구(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특정 산업에 숙련된 인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국내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사람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어 지역의 숙련된 기능인력이 다수 유입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전문인력은 대부분 광역시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뚜렷한 분포를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체류 목적과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IV.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1. 분석개요 및 변수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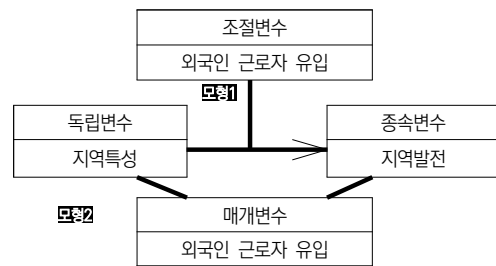
1) 분석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비수도권 지역 163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비수도권 지역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 생활 및 정주 환경, 산업,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모형은 첫째, 비수도권 지역이 가지는 지역특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지역특성의 세부적 하위 변수인 산업 및 정책특성과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지역 내 총생산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지역발전 간의 간접효과를 검증한다(그림 2) 참조). 모형 1은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였다. 모형 2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Jamovi 2.6.17 프로그램의 매개모형(GLM Mediation Model)을 사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 내 총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및 정책특성이 지역 내 총생산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라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내 총생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 변수설정 및 자료구축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7) 특정활동(E-7)은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8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는 기술 및 기능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된다.

의 변화가 지역 내 인구, 산업, 경제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생활 여건, 인구 규모, 산업단지 및 주택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의 역동성(dynamic)과 같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특성은 다른 도시 또는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의 특성을 말하며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합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Paasi, A(2003)는 지역 정책성에 대해 자연, 문화, 인적 특성 등 지역의 고유한 자연, 경관, 역사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지각 또는 사고를 바탕으로 제도적 행위, 상징성, 담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김태경, 서원석 2012, 65-66).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특성을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인구, 생활 및 정주환경, 산업, 정책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발전은 지역적 공간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성장을 포괄하고 지역의 효율적 자원배분 및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남창우, 송인호, 이종연, 마강래 외 2020, 8). 이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같은 통계치를 주로 활용하며 1인당 소비, 빈곤율, 실업률, 고용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Nijkamp and Abreu 2009; 민보경 2022, 17). 지역발전은 생산과 소득 증대를 기본으로 하며 지역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지역 내 총생산(GRDP)을 활용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특성을 지역발전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며 생애주기 관점(life cycle)에서 생산과 소비패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인구특

성은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역의 재정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연, 지역쇠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져 지역 간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김병석, 서원석 2014, 2).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지역 유출이 급증하면서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노동력 공급 부족이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된다(Hondroyannis and Papapetrou 2001; Aksoy, Basso, Smith and Grasl 2019).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지역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시되고 있다(Day and Barlett, 2000; Yoon and Hewings 2006). 이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져 생산가능인구의 보완이 가능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Bloom, Canning and Fink 2011; 장한익, 원광해 2021, 6).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유입이 고령화를 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된다(이소연, 임업 2017, 41). 또한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인구이동에 따라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 소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유입은 지역 내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대를 의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임태경 2021, 75)를 미치므로 청년인구 이동은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상호관계 간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 및 정주환경 특성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지역 활력은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제안되고 정주 여건, 성장 잠재력, 생활인구

가 중요한 개념으로 확장된다(이원도, 유수동, 김영룡 2023, 263). 특히 지역의 도서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은 지역발전에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역의 문화 및 공공시설 등의 물리적 기반 시설과 문화환경의 차이가 인구 유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병민 2021, 624; 오지운, 성진, 정주철 2023, 6).

한편 지역 내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 및 정주환경의 조성은 공간적 포용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은 거주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환경요인으로 인구가 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주택 다양성은 주거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이주 필요성을 낮춰 지역의 사회적 혼합을 제공한다(Musterd and Andersson 2005; 고은정, 안건혁 2014, 3).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및 소비활동을 발생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지역의 입지 및 물리적 소비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박정아 2023, 54).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역의 소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이찬영, 조수영 2017, 126).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능력에 따라 체류자격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된다. 특히 대부분의 단순기능인력이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체류자격 유형별, 동일 국적 등의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정 지역에 공

간적으로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또는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정하고 있다⁸⁾.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다양성 창출을 통해 도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윤영 2014,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경제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역 생산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산액 증가와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장기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2007; 최병두 2009, 376, 387). 다양한 노동 인력이 지역 내 유입되면 규모의 경제와 생산요소의 집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도시성장에 기여될 수 있다(홍기용 2004, 42-43). 지역 산업 측면에서 특정 산업의 집적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력의 허용 업종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고용 허가제를 통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한정된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허용 업종인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의 입지계수를 산출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침체에 대응하는 인구 및 이민정책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지역경제 및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지역발전과의 영향 관계에서 지역특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가능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8) 2023년 기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은 전국 127곳이며 수도권 지역은 경기 24곳, 서울 18곳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85곳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작년 대비 30곳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b).

외국인 관련 정책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조례와 외국인 지원센터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조례를 지자체별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역의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생활, 교육 등을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 도시를 중소도시로 설정하고 지역의 산업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표 2〉 참조).

자료는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및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23년 시점의 단일 변수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자료공개 시점이 동일하지 않고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자료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측정변수의 데이터 일관성과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수와 지역 내 총생산 변수를 자연로그(log, ln)로 치환하여 활용하였다.

표 2 변수설정

		변수	연도	설명	단위	출처·자료	
		중속변수 (지역발전)	지역 내 총생산(LN)	2023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의 합	백만 원	통계청 지역통계
		매개변수 (외국인 근로자 유입)	외국인 근로자(LN)	202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인력(E-1~7)과 단순기능인력(E8~10, H2) 지역 유입 인구	명	법무부·출입국본부 등록외국인
독립 변수 - 지역 특성	인구특성	고령인구	2023	지역 인구 내 65세 이상인 인구	명	통계청 주민등록현황	
		청년순이동률	2023	청년순이동자 수/청년연앙인구×100	%	통계청 주민연앙인구/국내이동	
	생활 및 정주환경 특성	소상공인 매출액	2023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연매출	백만 원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통계	
		문화시설	2023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	개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주택유형혼합	2023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지역의 주택유형의 다양성 지수(SD지수)	SD 지수	통계청 주택총조사	
	산업특성	농림·어업 입지계수	2020	지역의 농림, 어업, 임업에 대해 전국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계수	LQ	통계청 사업체조사	
		제조업 입지계수	2020	지역의 제조산업에 대해 전국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계수	LQ	통계청 사업체조사	
		건설업 입지계수	2020	지역의 건설산업에 대해 전국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 계수	LQ	통계청 사업체조사	
	정책특성	외국인 관련 조례	2023	외국인 관련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수	개수	국가법령체계	
		외국인 지원센터	2023	지역 내 외국인 지원센터 및 정책 시스템	더미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공간특성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2023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지역	더미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비수도권 중소지역	2023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1	더미	-		

2. 분석결과

표 3 기술통계량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오차
지역 내 총생산	-1.20	3.66	1.21	1.01
외국인 근로자 유입	-4.61	-0.08	-2.67	1.12
고령인구	0.33	21.10	4.21	3.11
청년순이동률	-12.6	11.40	-3.14	3.67
소상공인 매출액	0.17	15.66	2.69	2.78
문화시설	0.10	2.10	0.71	0.43
주택유형 다양성	0.14	0.77	0.48	0.11
농림어업 입지계수	0.00	27.88	4.84	5.04
제조업 입지계수	0.18	4.14	1.39	0.66
건설업 입지계수	0.07	3.03	1.08	0.77
외국인 관련 조례	0.00	9.00	3.25	1.20
외국인 지원센터	0	1	0.47	0.68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0	1	.49	.50
중소도시	0	1	.68	.468

주: 통계량(N)=163.

1) 기술통계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지역 내 총생산은 평균 1.21(표준편차 1.01)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평균 -2.67(표준편차 1.1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인구특성인 고령인구 평균 4.21(표준편차 3.11), 청년순이동률 평균 -3.14(표준편차 3.67)이고 생활 및 정주여건 특성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평균 0.12(표준편차 0.32), 소상공인 매출액 평균 2.69(표준편차 2.78), 주택 다양성 평균 0.48(표준편차 0.11), 문화시설 평균 0.71(표준편차 0.43)이다. 산업특성은 농림어업 입지계수 평균 4.84(표준편차 5.04), 제조업 입지계수 평균 1.39(표준편차 0.66), 건설업 입지계수 평균 1.04(표준편차 0.877)이고 정책특성은 외국인 관련 조례 평균 3.25(표준편차 1.20), 외국인 지원센터 평균 0.47(표준편차 0.32)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평균 0.68(표준편차 0.468)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왜도 3 이하, 첨도 ±7 이하의 정규분포 기준(Kline 2005)을 충족하였다.⁹⁾

2)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지역발전 관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상호작용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¹⁰⁾에 대한 설명력은 86%로 나타났고(수정된 R² =.86)

F 통계량은 59.753(p<0.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이 1.90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

분석 결과, 청년순이동률($\beta=0.117$, p<0.01), 소상공인 매출액($\beta=0.369$ p<0.001), 문화시설($\beta=-0.180$, p<0.01), 제조업 입지계수($\beta=0.113$, p<0.05), 건설업 입지계수($\beta=0.111$, p<0.05), 농림어업 입지계수($\beta=-0.145$, p<0.05), 외국인 지원센터($\beta=0.54$, p<0.01), 외국인 근로자 유입($\beta=0.322$, p<0.01)은 지역 내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순이동률은 지역의 청년인구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파악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순이동률이 증가할수록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9) 기술통계량 결과 왜도값은 최소 -0.78~최대 2.01, 첨도값 최소 -0.98~최대 6.15값으로 나타났음.

10)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음. 각각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나타내는 분산팽창지수(VIF) 10 이하로 도출되어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낮다고 판단하였음.

11) 더빈 왓슨 계수는 $1.7 \leq d \leq 2.3$ (J.Durbin 1950)의 경우 오차항의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중구, 전북 완주군, 충남 계룡시, 충남 아산시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인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도시 및 광역시로 이동하고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및 정책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송선영, 남진 2025, 131). 즉, 청년의 지속적인 순유입은 지역의 생산·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말하며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산업과 고용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생활에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김현철, 이승일 2019, 119). 지역의 소비 활력 측면에서 소상공인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의 소비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이 지역 가치와 지역 활성화 측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는 지역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적은 지역적 상황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집적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총생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과 건설업이 특화된 지역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 분포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아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Puga and Venables 1999; 지해명 2012, 71). 반면 농림어업 입지계수는 지역 내 총생산에 통계적 유의미한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표 4 상호작용 분석 결과(모형1)

구분	변수	Coef.	S.E	β	VIF
	(상수)	1.774	.366	4.841	
인구 특성	고령인구	.009	.017	.027	3.02
	청년순이동률	.032	.010	.117**	1.55
생활 및 정주 환경 특성	소상공인 매출액	.134	.025	.369***	5.36
	공공문화시설	-.421	.132	-.180**	3.69
	주택 다양성	.235	.318	.027	1.51
산업 특성	농림어업 입지계수	-.029	.011	-.145**	3.50
	제조업 입지계수	.171	.067	.113*	2.21
	건설업 입지계수	.150	.067	.111*	3.03
정책 특성	외국인 관련 조례	.006	.040	.007	2.67
	외국인 지원센터	.188	.060	.054*	1.69
공간 특성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153	.079	.091	2.33
	중소도시	-.233	.134	-.108	4.49
상호 작용	외국인 근로자 유입	.291	.055	.322**	4.35
	외국인 근로자×농림어업	-.150	.106	-.090	4.73
	외국인 근로자×제조업	.812	.444	.077	2.06
	외국인 근로자×조례	.073	.168	.019	2.23
	외국인 근로자×중소도시	1.447	.600	.121*	2.94
모형	R ²				.875
	adj-R ²				.860
	F				59.753***
	Durbin-Watson				1.902

주: *:p-value<.05,**: p-value<.01,***: p-value<.001

농림어업의 특화가 높은 곳은 경북 청도군, 전북 장수군, 경남 합천군, 경북 영양군 등 군지역 소도시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낮은 지역에 속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으면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동력 수요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대체·보완하고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2007; 최병두 2009).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충북 음성군 등을 중심

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수급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여 지역의 산업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보완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으면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체류 지원 서비스와 취업 활동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되는 곳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지역자산으로서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라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구 및 경제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일수록 지역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도시일수록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인력 대체·보완뿐 아니라 인구증가와 정착 효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외국인 관련 조례와 건설업, 제조업, 농림어업 입지계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역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3)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지역발전 관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매개효과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지역발전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부트스트

래핑 결과로 산출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특성인 고령인구($Z=2.144, p=0.032$), 소상공인 매출액($Z=4.46, p=0.001$), 문화시설($Z=-3.091, p=0.001$), 주택 다양성($Z=2.651, p=0.008$), 농림어업 입지계수($Z=2.158, p=0.031$), 건설업 입지계수($Z=5.635, p=0.001$), 외국인 관련 조례($Z=2.836, p=0.005$),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Z=6.464, p=0.001$)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주택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비수도권 대도시일 경우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림어업이 집적된 지역일수록, 비수도권 중소도시일 경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이 집적된 지역,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은 고숙련 및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였다(<부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인구는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양(+)의 간접효과($0.014^*= 0.048^* \times 0.286^{***}$)¹³⁾를 갖는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24%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행정안전부, 2024a) 인구밀도가 낮은 경북 의성군(44.7%), 전남 고흥군(43.0%), 경북 봉화군(40.1%) 등의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많은

12) 부트스트랩(Bootstrap)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표본 데이터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소벨테스트(Sobel-test)보다 안정적이고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266).

13) *, **, ***은 통계적 유의성(p-value)을 나타내며 p-값의 유의수준이 <0.001이면 ***, <0.01이면 **, <0.05이면* 으로 표시함.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결과(모형2)

구분	경로		직접효과 Direct effect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총효과 Total effect		
			Est.	z	p	Est.	z	p	Est.	z	p
인구 특성	고령인구	→지역 내 총생산	0.021	1.328	0.184				0.035	2.063	0.039
		→외국인 근로자	0.048	2.144	0.032	0.014	1.989	0.047	0.048	2.144	0.032
	청년 순이동율	→지역 내 총생산	0.031	3.224	0.001				0.035	3.347	< .001
		→외국인 근로자	0.014	0.969	0.332	0.004	0.954	0.34	0.014	0.969	0.332
생활 및 정주 환경 특성	소상공인 매출액	→지역 내 총생산	0.107	5.155	< .001				0.144	6.736	< .001
		→외국인 근로자	0.128	4.46	< .001	0.037	3.421	< .001	0.128	4.46	< .001
	문화시설	→지역 내 총생산	-0.510	-4.129	< .001				-0.665	-5.096	< .001
		→외국인 근로자	-0.542	-3.091	0.002	-0.155	-2.674	0.007	-0.542	-3.091	0.002
	주택 다양성	→지역 내 총생산	0.282	0.989	0.323				0.592	1.948	0.051
		→외국인 근로자	1.082	2.651	0.008	0.310	2.374	0.018	1.082	2.651	0.008
산업 특성	농임어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025	-2.746	0.006				-0.017	-1.733	0.083
		→외국인 근로자	0.028	2.158	0.031	0.008	2.001	0.045	0.028	2.158	0.031
	제조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135	2.181	0.029				0.091	1.371	0.17
		→외국인 근로자	-0.152	-1.699	0.089	-0.043	-1.619	0.106	-0.152	-1.699	0.089
	건설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129	2.151	0.031				0.259	4.328	< .001
		→외국인 근로자	0.453	5.635	< .001	0.130	3.873	< .001	0.453	5.635	< .001
정책 특성	외국인 관련 조례	→지역 내 총생산	-0.013	-0.404	0.687				0.024	0.709	0.478
		→외국인 근로자	0.127	2.836	0.005	0.036	2.504	0.012	0.127	2.836	0.005
	외국인 지원센터	→지역 내 총생산	0.170	2.214	0.027				0.191	2.295	0.022
		→외국인 근로자	0.074	0.663	0.507	0.021	0.658	0.51	0.074	0.663	0.507
공간 특성	외국인 집중 가주지역	→지역 내 총생산	-0.094	-1.075	0.282				0.116	1.375	0.169
		→외국인 근로자	0.733	6.464	< .001	0.210	4.113	< .001	0.733	6.464	< .001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역 내 총생산	-0.195	-1.595	0.111				-0.104	-0.794	0.427
		→외국인 근로자	0.316	1.789	0.074	0.090	1.696	0.09	0.316	1.789	0.074
매개 변수	외국인 근로자 유입	→지역 내 총생산	0.286	5.333	< .001				0.286	5.333	< .001

주: 1) *:p-value(.05,**:p-value(.01,***:p-value(.001

2) 부트스트랩(Bias corrected bootstrap)을 적용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지역일수록 인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역 내 총생산(0.107****)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양(+)의 간접효과(0.037**** = 0.1281**** × 0.286****)를 갖는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마찬가지로 저숙련 외국

인 근로자 유입의 양(+)의 간접효과를 가진다. 즉,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소비 및 공공지출 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단순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역 내 생활활동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을 통해 특정 업종이

발달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

주택 다양성은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양(+)의 직·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 유형이 다양한 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총생산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주지역의 주택은 지역 선택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주택 유형의 다양성은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문화시설은 지역 내 총생산의 직접효과와 외국인 근로자의 간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로 문화시설은 지역 내 총생산의 고속권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직·간접 효과(-)를 나타냈다. 즉,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문화시설과 같은 인프라 시설의 증가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생활기초 인프라 및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산업특성은 건설업 입지계수에서 지역 내 총생산(0.129*)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간접효과(0.130*** = 0.453*** × 0.286***)를 가졌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건설업이 집적된 지역일수록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숙련 및 고속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양(+)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농림어업은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 음(-)의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양(+)의 간접효과(0.008* =

0.028* × 0.286***)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농림어업 입지계수는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 양(+)의 영향을 미치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양(+)의 간접효과를 가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이 특화된 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역 내 총생산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인구 고령화와 3D업종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특정 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대체·보완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 김해시, 창원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 유입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는 지역의 노동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상황과 맞물린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업 생산 및 소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강원 및 경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법무부 2022).

반면 농림어업 입지계수 증가는 지역 내 총생산에 유의미하지 않으나 고속권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음(-)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농림어업이 집적된 지역에 대부분 군단위 소도시로 고속권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거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속권 외국인 근로자는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 분포를 보인다. 이는 고차서비스와 전문직 직종 등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분포와 지역적 복합적인 상황과 연계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책특성은 외국인 관련 조례에서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에 양(+)의 간접효과(0.036* = 0.127* × 0.286***)를 가진다. 비수도권 지역의 외

국인 관련 조례 설치·운영이 활발하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실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관련 조례가 많다. 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 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항 등 지역 정착을 위한 다분야의 계획을 담고 있다. 외국인 관련 조례가 많은 제주지역은 외국인 유입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비례한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은 지역 내 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직접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양(+)의 간접효과(0.021*** = 0.733*** × 0.286***)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특정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초국가적 사회 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의 기능을 하게 된다(Faist 2007). 외국인 비율이 전국 평균 약 5%를 넘는 시군구 지역은 83개이며 이 중 10% 이상인 경우 14개에 달한다(행정안전부 2024a).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사회적, 공간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주의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 분포가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확산하고 고숙련 및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의 외국인 유입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회 구조, 사회적 네트워크, 이웃과 기관의 활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Lee, Martinez and Rosenfeld 2001; 차용호 2022, 34).

비수도권 중소도시일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총생산은 직·간접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양(+)의 간접효과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음(-)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인구, 사회,

경제적 지역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조건 및 업무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반대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전문성을 갖춘 숙련인력이 요구되는 일자리의 수요와 미스매치되는 지역환경 등의 복합적인 상황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공간적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 내 총생산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하여 산출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인구는 직접효과(0.021)와 간접효과(0.014*)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에 양(+)의 총효과(0.035* = 0.021 + 0.01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매출액은 직접효과(0.107***)와 간접효과(0.037***)에 양(+)의 총효과(0.144*** = 0.107*** + 0.037***)를 가지며, 문화시설은 직접효과(-0.510***)와 간접효과(-0.155***)에 음(-)의 총효과(-0.542*** = (-0.510***) + (-0.15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입지계수는 직접효과(-0.025*)와 간접효과(0.008)를 통해 양(+)의 총효과(0.028** = (-0.025*) + 0.008)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입지계수는 직접효과(0.129***)와 간접효과(0.130***)를 통해 양(+)의 총효과(0.259*** = 0.129* + 0.130***)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발전 차원의 외국인 이민정책이 장기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비수도권 지

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체류 유형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지역별 군집 양상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발전 간의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특성은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력 도입이 장단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지역발전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산업, 생활 및 정주 환경, 정책적 지역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순이동률, 소상공인 매출액, 공공문화시설,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입지계수, 외국인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지역 내 총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수도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지역 산업의 위축과 활성화 저하 등 지역이 가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높이는 생활인구로서¹⁴⁾ 인구 및 경제활력에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정책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발전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인구, 주택다양성,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외국인 관련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완전매개(full mediation)하고 소상공인 매출액, 문화시설, 농림어업 입지계수, 건설업 입지계수는 부분적으로 매개(partial medi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주택 유형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외국인 관련 조례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강한 매개효과를 가진다. 이는 대부분 비수도권 군단위 소도시 이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한 지역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지역산업의 노동력 대체·보완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허가제 정책에 따른 저숙련 인력 도입은 공간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효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 내 총생산에 간접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역의 특화 산업인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간접효과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저출생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소멸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보완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에 직·간접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건설업이 집적된 지역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긍정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 단순노무 및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며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고숙련 외국인

14)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23.1.1.시행)에 근거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며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중 「출입국 관련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근로자의 수요 비중이 높아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재정에 긍정적인(+) 순기여도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이규용 외, 2025).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유형에 따라 지역특성과 생산성 고려하여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와 고숙련·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정주화를 위한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규모와 일자리 특성, 지역의 산업구조 현황 등 특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지역의 공간적 특성 및 지리적 분포에 따라 집중되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내 총생산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의미를 생산하며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의 노동력은 허용 업종에 따라 이동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형성하고 점차 공간을 확장 또는 재편하는 양상을 보인다(문경희 2013, 198). 외국인 유입은 지역의 인구, 산업, 경제, 사회문화 인프라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발전된다. 반면 이들은 지역 내 경제 인프라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발달하면서 분절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한다(차용호 2022, 35).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현상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입을 위한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포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있어 지역발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력의 지역 내 유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비수도권 지역특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간접효과를 새로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발전과 관련한 모든 요인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이를 반영한 실증분석이 향후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강동관. 2016.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경기: 이민정책연구원.
Kang Dong Kwan. 2016. *Economic Activities and Impacts of Mirgrants in Korea*. Gyeonggi: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 김동신. 2021.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21권, 2호: 177-205.
Kim Dong Shin. 2021. A study on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migration of youths in local areas: Focusing on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21, no.2: 177-205.
3. 김병석, 서원석. 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한국지역학회지 26권, 4호: 1-14.
Kim Byung-Suk and Seo Wonseok. 2014. Investigat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ffecting regional population changes: Comparing capital region to Non-capital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6, no.4: 1-14.
4. 김정호. 2009.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Kim Jungho. 2009.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flow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Seoul: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5. 김윤경, 문태현, 허선영, 정윤영. 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12권, 2호: 1-15.
Kim Yoon-Kyoung, Moon Tae-Heon, Heo Seon-Young and Jeong Yoon-young. 2014.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of Foreigner-dense areas. *Housing environment* 12, no.2: 1-15.
 6. 김태경, 서원석. 2012. 근린공간요소를 고려한 지역특성이 광역 공동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28권, 3호: 63-82.
Kim Tae-Kyung and Seo Wonseok. 2012. Impacts of neighboring spatial features as a locality on Area-wide apartment complex market. *Journal of the KRSA* 28, no.3: 63-82.
 7. 김현철, 이승일. 2019. 서울시 골목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권, 1호: 117-134.
Kim Hyeoncheol and Lee Seungil.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evenue in Seoul's side street trade areas. *Seoul Studies* 20, no.1: 117-134.
 8. 김홍배, 윤갑식, 오동훈. 2007.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역연구* 23권 3호: 3-25.
Kim Hong-Bae, Yeon Gabsik and Oh Donghun. 2007. Impact analysis of foreign worker employment on regional economies of Korea. *Journal of the KRSA* 23, no.3: 3-25.
 9. 고은정, 안건혁. 2015. 사회적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5권, 1호: 1-15.
Ko Eun Jeong and Ahn Kun Hyuck. 2014. Effects of neighborhood environment on social divers: Focused on Seoul. *The Seoul Institute* 15, no.1: 1-15.
 10. 구분우, 이자성, 정호진, 윤재봉, 이주병, 김대영. 2024. 창원특례시 외국인 유입 및 지역정착 방안 연구. 경상남도: 창원시정연구원.
Koo Bonwoo, Lee Jasung, Jeong Hojin, Yoon Jaebong, Lee Jubyeong and Kim Daeyoung. 2024. *Research on Foreigner Influx and Local Settlement in Changwon Special Case City*. Gyeongsangnam-do: Changwon City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11. 남창우, 송인호, 이종연, 마강래, 문윤상, 한재필. 2020. 지역발전의 정책 방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Nam Changwoo, Song Inho, Lee Jongyeon, Ma Gangrae, Moon Yoonsang and Han Jaepil. 2020. *Policy Strategies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2. 뉴캐슬사회지리연구회. 2023. 경계넘기와 함께하기를 위한 사회지리학개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Newcastle Social Geography Research Society. 2023. *Soci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Seoul: Social Criticism Academy.
 13. 류주현. 2009. 수도권 외국인 노동자의 직주거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권, 1호: 77-90.
Ryu Juhyeo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uting distance of foreign work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 no.1: 77-90.
 14. 민보경. 2022.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이슈.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Min, Bokyeong. 2022.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ssues in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Seoul: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15. 문경희. 2013. 이주노동자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권리에 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23권, 3호: 197-224.
Moon Kyounghee. 2013. The right to space?: Aspects of foreign workers' experiences of spatial division and social exclusion in Korea.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3, no.3: 197-224.
 16.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세종: 국토연구원.
Park Se Hoon, Lee Young A, Kim Eun Ran and Jeong So Yang. 2009. *Reinventing Urban Policy in Response to Ethnic Diversity*.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7. 박정아. 2023.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요인 비교. *부동산학보* 89권: 51-66.
Park Jung A. 2023.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ales of small businesses in Seoul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Korea Real Estate Academy* 89: 51-66.
 18. 법무부. 2022.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실시, 7월 25일. 보도자료.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Pilot Implementation of 'Region-specific Visa' Based on Local Government Demand, July, 25. Press release.
19. _____. 2025.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4월 2일, 보도자료.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 Full Implementation of a Demand-driven Visa System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vitalize Local Economies, April, 2. Press release.
 2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3. 2022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3. Yearbook of Korea Immigration Statistics 2022.
 21.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202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3호, 2023.5.18.). 제2조. *Regulations on detailed requirements for living population*. 2023.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otice No.2023-33, May 18, 2023. Article 2
 22. 송선영, 남진. 2025.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이동패턴 및 지역특성. 도시부동산연구 16권 1호: 107-135. Song Sun-yong and Nam Jin. 2025. Analysis on youth population movement patter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clining population areas: Focused on outside the metropolitan regions.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16, no.1: 107-135.
 23. 이건희, 김규찬. 2023. 외국인 근로자 주거정책 연구: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권, 1호: 124-152. Yi Geon Hui and Kim Gyuchan. 2023. A study on housing policies for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6, no.1: 124-152.
 24. 이규용, 김유빈, 강동우, 최세림, 조혁진, 김영아, 신주연. 2025.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Lee Kyuyong, Kim Yubin, Kang Dongwoo, Choi Serim, Cho Hyeokjin, Kim Yeonga and Shin Juyeon. 2025. Immigr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5.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FOCUS 395호. Lee Sanglim. 2020.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population crisis due to youth population movement.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395.
 26. 이용규, 노용진, 이정민, 이해경, 정기선, 최서리. 2008. 체류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Lee Yonggyu, No Yongjin, Lee Jeongmin, Lee Hyekyoung, Jeong Giseon and Choe Seori. 2008. *Labor market policy tasks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27. 이원도, 유수동, 김영룡. 202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지방학회연구 37권 1호: 251-279. Lee Won Do, Yoo Soodong and Kim Young-long. 2023. Unveiling variation in regional vitality over time for tackling population decline in South Korea.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7, no.1: 251-279.
 28. 이영주, 임은선, 정우성. 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Lee Youngjoo, Im Eunsun and Jeong Wooseong. 2022. *Development of Vitality Index for Regional Economy Monitoring*.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9. 이소영. 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ee Soyeong. 2013. *Enhancing Local Community in Ethnic Places*.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30. 이소현, 임업. 2017.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 29권, 1호: 23-49. Lee So Hyeon and Lim Up. 2017.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employment of the elderly: Using spatial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9, no.1: 23-49.

31. 이병민. 20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정책 모델화. *대한지리학회지* 56권, 6호: 623-638.
Lee Byungmin. 2021. Standardization and policy modeling to support vulnerable areas.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6, no.6: 623-638.
32. 이정현, 정수열. 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권 2호: 304-318.
Lee Jung-Hyun and Jung Su-Yeul. 2015. The sustain growth of the foreigners' residential concentration in Korea: A case study of Daelim-dong, Seoul.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1, no.2: 304-318.
33. 이종관. 2020.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Lee Jongkwan. 2020. *Impact of the Influx of Foreigners and Immigrants on the Labor Market*.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34. 이찬영, 조수영. 2017.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관계 분석: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 연구* 15권, 2호: 103-129.
Lee Chanyoung and Cho Suyoung. 2017. Analysis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Journal of Korea Regional Economics* 15, no.2: 103-129.
35. 이현옥. 2015.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 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권 3호: 57-74.
Lee Hyeonuk. 2015.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patial distribu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8, no.3: 57-74.
36. 임태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청년인구 유입의 효과성 분석-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8권, 3호: 73-94.
Lim, Taekyoung. 2021. The impact of influx of youth population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Focused on the case of Chungbook province as an innovative city -.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18, no.3: 73-94.
37. 오설리번. 2021. 오설리번의 도시경제학. 박영사.
O'Sullivan. 2021. *Urban Economics*. Seoul: Parkyoungsa.
38. 오준병. 2017.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36권 25-41.
Oh Junbyeong. 2017. The labor market effect of foreign workers: An empirical study on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36: 25-41.
39. 오지운, 성진, 정주철. 2023.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와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58권 1호: 5-15.
Oh Ji-Woon, Seong Jin and Jung Ju-Chul. 2023. Analysis on regional dispariti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ultural infrastructur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8, no.1: 5-15.
40. 유길상, 이규용, 이해춘, 노용진, 김현구, 조준모, 박의경. 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Yu Gilsang, Lee Kyuyong, Lee Haechoon, No Yongjin, Kim Heongu, Jo Junmo and Park Euikyong. 2004. *Labor Market Analysis of Low Skilled Migrant Workers in Korea*.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41. 유광철, 오동훈. 2014.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4호: 71-91.
Yoo Kwang-Cheol and Oh Dong-Hoon. 2014. Study for correlation of foreign immigrants by types' influx and local economy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6, no.4: 71-91.
42. 유희연. 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 국토연구원.
Yu Huiyeon. 202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istribution of Low-skilled Migrant Workers in Korea*.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43. 장한익, 원광해. 2021. 고령인구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9권, 3호: 3-35.
Jang Han Ik and Won Kwang Hae. 2021. The effects of changes of the aged population on the changes in the region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39, no.3: 3-35.
44. 정현주. 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민족과 젠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 차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권, 3호: 567-585.
- Jung Hyeonjoo. 2020. Civic stratification and spatial division of immigrants in Korean migration policy: Differentiation of migrant workers' visa status based on ethnicity and gend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9, no.3: 567-585.
45. 정성진, 김희삼. 2020.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고용영향: 사업장 수준의 월별 자료 분석. 노동정책연구 20권, 2호: 33-72.
- Jung Sungjin and Kim Hisam. 2020. The effects of labor importation on domestic employment: An analysis at the workplace level using monthly data.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0, no.2: 33-72.
46.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15권, 1호: 257-282.
- Jung Sunho and Seo Dong Gi. 2016.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5, no.1: 257-282.
47. 전승훈. 2013.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3권 1호: 1-37.
- Jeon Seung-Hoon. 2013.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3, no.1: 1-37.
48. 주보혜, 오신휘, 박종서, 류종현, 변혜선, 오병기, 정서린, 김윤영, 장인수. 2022. 인구구조변화대응 및 지역상생을 위한 인구정책방안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Joo Bohye, Oh Sinhyu, Park Jongseo, Ryu Jonghyeon, Byun Hyeseon, Oh Byeonggi, Jeong Seorin, Kim Yunyeong and Chang Insu. *Research on Population Policy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Promote Regional Coexistence*. Seoul: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9. 지해명. 2012.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분해와 LQ 분석. 경제학연구 60권, 1호: 69-91.
- Ji Hae Myoung. 2012. Spatial distribution of industries and regional growth inequality: Gini decomposition and LQ analysis.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60, no.1: 69-91.
50. 조경엽, 강동관. 2014.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Jo Kyeongyeop and Kang Donggwon. 2014. *The Economic Impact of Expanded Immigration*. Seou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51. 차용호. 2021. 이민자 유입이 한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공간 관계 분석과 SUR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Cha Yongho. 2021.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urban and rural economy: Spatial relationship and SUR model for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h.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52. 최병두. 2009.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권, 3호: 369-392.
- Choi Byung-Doo. 2009. Impacts of immigrant workers on regional economy in Korea.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5, no.3: 369-392.
53. 통계청. 2023. 2023년 출생사망통계, 2월 28일. 보도자료. Statistics Korea. 2023. Birth and Death Statistics in 2023, February, 28. Press release.
54. 행정안전부. 2017.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1월 11일. 보도자료.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A Government Tailored to the People, a Vibrant Community, January, 11. Press release.
55. _____. 2024a. 65세 이상 인구비중 20% 기록, 12월 24일. 보도자료. _____. 2024a. 20%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ld, December, 24. Press release.
56. _____. 2024b.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설명자료, 10월 24일. 보도자료. _____. 2024b. 2023 Local Government Foreign Resident Status Explanation Material, October, 24. Press release.
57. 홍기용. 2004. 도시경제론. 서울: 박영사.

- Hong Giyong. 2004. *Urban Economics*. Seoul: Parkyoungsa.
58. Aksoy, Y., Basso, H. S., Smith, R. P. and Grasl, P. 2019. Demographic Structure and Macroeconomic Trend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1, no.1: 193-222.
59. Bloom, D. E., Canning, D. and Fink, G. 2011.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for economic growth. *Oxford Reivew of Economic Policy* 64, no.4: 583-612.
60. Borjas, G. J., Grogger, J. and Hanson, G. H. 2010. Immigration and the economic status of African-American men. *Economica* 77, no.306: 255-282.
61. Bromley, R. D. F. and Thomas, C. J. 2002. Food shopping and town centre vitality: Exploring the link.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tail, Distribution and Consumer Research* 12, no.2: 109-130.
62. Day, F. A. and Barlett, J. M. 2000.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on the Texas Hill count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 no.1: 78-94.
63.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4. _____. 2007. Transnationale migration als relative immobilität in einer globalisierten Welt. *Soziologie der Migration* 17: 365-385.
65. Hondroyiannis, G. and Papapetrou, E. 2001. Demographic Changes, Labor Effort and Economic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Greece. *Journal of Policy Modeling* 23, no.2: 169-188.
66. Kline, Rex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67. Lee, M. T., Martinez, R. and Rosenfeld, R. 2001. Does immigration increase homicide? Negative evidence from three border cit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2, no.4: 559-580.
68. Makkonen, T. and Inkinen, T. 2023. Benchmarking the vitality of shrinking rural regions in Finland. *Journal of Rural Studies* 97: 334-344.
69. Musterd, S. and Andersson, R. 2005. Housing mix, social mix and social opportunities. *Urban Affairs Review* 40, no.6: 761-790.
70. Nijkamp, P. and Abreu, M. 2009. Regional Development Theo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202-207.
71. Paasi, A. 2003. Region and place: Regional identity in ques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 no.4: 475-485.
72. Puga, D. and Venables, A. J. 1999. Agglom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ort substitution vs. trade liberalization. *The Economic Journal* 109, no.445: 292-311.
73. Greenwood, M. J. and Hunt, G. L. 1995. Economic effects of immigrants on native and Foreign-born workers: Complementarity, substitutability, and other channels of influe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61, no.4: 1076-1097.
74. Yoon, S. G. and Hewings, G. J. D. 2006.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icago Region*, Regional Economics Applications Laboratory Discussion Papers, 06-T-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8669964_Impacts_of_Demographic_Changes_in_the_Chicago_Region (accessed June 27, 2025).

- 논문 접수일: 2025. 2. 25.
- 심사 시작일: 2025. 4. 23.
- 심사 완료일: 2025. 6. 19.

부표 1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결과

경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E-1~E-7)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8~E-10,H-2)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		
		Est.	z	p	Est.	z	p	Est.	z	p	Est.	z	p	Est.	z	p	Est.	z	p
고령인구	→지역 내 총생산	0.020	1.298	0.194				0.035	2.063	0.039	0.025	1.606	0.108				0.035	2.063	0.039
	→외국인 근로자	0.057	1.992	0.046	0.015	1.903	0.057	0.057	1.992	0.046	0.045	1.615	0.106	0.009	1.523	0.128	0.045	1.615	0.106
청년 순이동율	→지역 내 총생산	0.031	3.230	0.001				0.035	3.347	<.001	0.034	3.472	<.001				0.035	3.347	<.001
	→외국인 근로자	0.019	1.030	0.303	0.005	1.017	0.309	0.019	1.030	0.303	0.005	0.262	0.794	0.001	0.261	0.794	0.005	0.262	0.794
소상공인 매출액	→지역 내 총생산	0.125	6.521	<.001				0.144	6.736	<.001	0.114	5.394	<.001				0.144	6.736	<.001
	→외국인 근로자	0.070	1.927	0.054	0.018	1.846	0.065	0.070	1.927	0.054	0.149	4.186	<.001	0.030	3.092	0.002	0.149	4.186	<.001
문화시설	→지역 내 총생산	-0.476	-3.973	<.001				-0.665	-5.096	<.001	-0.575	-4.633	<.001				-0.665	-5.096	<.001
	→외국인 근로자	-0.719	-3.227	0.001	-0.189	-2.884	0.004	-0.719	-3.227	0.001	-0.447	-2.057	0.04	-0.091	-1.877	0.061	-0.447	-2.057	0.04
주택 다양성	→지역 내 총생산	0.290	1.057	0.291				0.592	1.948	0.051	0.393	1.364	0.173				0.592	1.948	0.051
	→외국인 근로자	1.148	2.215	0.027	0.302	2.094	0.036	1.148	2.215	0.027	0.981	1.940	0.052	0.199	1.786	0.074	0.981	1.940	0.052
농임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005	-0.527	0.598				-0.017	-1.733	0.083	-0.027	-2.866	0.004				-0.017	-1.733	0.083
	→외국인 근로자	-0.046	-2.792	0.005	-0.012	-2.561	0.01	-0.046	-2.792	0.005	0.049	3.063	0.002	0.010	2.547	0.011	0.049	3.063	0.002
제조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142	2.385	0.017				0.091	1.371	0.17	0.123	1.958	0.05				0.091	1.371	0.17
	→외국인 근로자	-0.195	-1.721	0.085	-0.051	-1.663	0.096	-0.195	-1.721	0.085	-0.157	-1.414	0.157	-0.032	-1.351	0.177	-0.157	-1.414	0.157
건설업 입지계수	→지역 내 총생산	0.181	3.322	<.001				0.259	4.328	<.001	0.134	2.139	0.032				0.259	4.328	<.001
	→외국인 근로자	0.295	2.889	0.004	0.078	2.635	0.008	0.295	2.889	0.004	0.620	6.218	<.001	0.125	3.691	<.001	0.620	6.218	<.001
외국인 조례	→지역 내 총생산	-0.018	-0.602	0.547				0.024	0.709	0.478	-0.003	-0.094	0.925				0.024	0.709	0.478
	→외국인 근로자	0.160	2.806	0.005	0.042	2.572	0.01	0.160	2.806	0.005	0.130	0.935	0.35	0.027	2.106	0.035	0.130	0.935	0.35
외국인 지원센터	→지역 내 총생산	0.156	2.105	0.035				0.191	2.295	0.022	0.165	2.104	0.035				0.191	2.295	0.022
	→외국인 근로자	0.132	0.927	0.354	0.035	0.918	0.359	0.132	0.927	0.354	0.130	0.935	0.35	0.026	0.917	0.359	0.130	0.935	0.35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내 총생산	-0.043	-0.541	0.589				0.116	1.375	0.169	-0.032	-0.380	0.704				0.116	1.375	0.169
	→외국인 근로자	0.605	4.197	<.001	0.159	3.514	<.001	0.605	4.197	<.001	0.734	5.221	<.001	0.149	3.446	<.001	0.734	5.221	<.001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역 내 총생산	0.038	0.317	0.751				-0.104	-0.794	0.427	-0.223	-1.774	0.076				-0.104	-0.794	0.427
	→외국인 근로자	-0.540	-2.412	0.016	-0.142	-2.258	0.024	-0.540	-2.412	0.016	0.589	2.693	0.007	0.119	2.322	0.02	0.589	2.693	0.007
외국인 근로자	→지역 내 총생산	0.263	6.430	<.001				0.263	6.430	<.001	0.202	4.587	<.001				0.202	4.587	<.001

주: 부트스트랩(Bias corrected bootstrap)을 적용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비수도권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지역 내 노동인력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은 위축되고 지역활력이 저하되어 지역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비수도권 지역특성과 지역발전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의 공간적 분포는 체류유형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기회와 사회·문화적 정주환경에 따라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특성은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특성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산업, 정주환경 및 정책적 특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효율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해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도입과 공간적 다양성 확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비수도권 지역특성, 외국인 근로자 유입, 지역발전, 상호작용, 매개효과

